

맛따라 먹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⑯ 가사문학관-담양 누정과 원림

자연이 빚어낸 풍류와 사상의 터전

속도의 강박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쯤 세상과 단절된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달콤한 기회를 갖고 싶어한다. 담양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격인 곳이다.

담양에는 세상사를 떨쳐내고 자연과 일치된 삶을 꿈꿨던 옛 선비들의 풍류와 사상의 터전이었던 누정(樓亭)과 원림(園林)이 즐비하다. 누정과 원림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양식인 가사(歌辭)의 산실이기도 하다.

소쇄원, 식영정, 면양정 등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따라 건축물과 수목을 조성했기 때문에 인공적인 느낌의 현대 정원과 달리 인간과 자연이 빚어내는 조화의 극치를 맞출 수 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누정을 둘러보며 자신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것은 '슬로시티 운동(Slow City·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문화를 느끼며 쾌적한 삶을 향유하기 위한 운동)'을 맛보는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조선 최고 민간정원, 소쇄원 가사문학관 산실, 면양·송강정 선조들 '삶의 향취' 오롯이



◇소쇄원=조선 최고의 민간정원으로 꼽히는 이 곳은 입구부터 굽고 푸른 대나무가 쪽쪽 뿜어 답답했던 기분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조그만 연못과 계곡을 따라 살포시 발을 떼다보면 조선 선비의 의연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스스로를 '소쇄처사'라고 부르며 한평생 은거생활을 하던 선비 양산보처럼 번잡한 도시 생활을 잊고 물과 마음을 추스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소쇄원의 외나무 다리를 따라 내를 건너면 제월당이 있고 한 단 아래 작은 계곡의 정취를 맞볼 수 있는 광풍각이 있다. 제월당에는 하서 김인후가 보고 느낀 소쇄원의 48가지 모습을 담은 '소쇄원 48영사'가 현판으로 걸려 있다.

◇식영정=명종 15년(1560) 김성원(1525~1597)이 스승 임억령을 위하여 지은 정자로 언덕 아래에 김성원이 살던 서하당과 부용정을 새로 지었다. 식영정은 송강 정철이 성산별곡을 지었던 곳으로, 뒤편에는 수령 수백 년의 노송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임억령, 김성원, 고경명, 정철 네 사람을 '식영정 사선(四仙)'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들의 시문(詩文)을 강조하는 뜻에서 식영정을 '사선정(四仙亭)'으로 부른다. 당대의 대문호였던 이들이 지은 '식영정 20영(二十詠)'은 훗날 정철의 성산별곡의 모태가 되었다.

◇면양정=대부분 관광객들이 소쇄원이나 식영정으로 가느라 놓치기 쉬운 곳이 면양정이다. 1533년에 초정(卓

亭)으로 건립된 이 면양정에서 당대 호남 제일의 가단으로 꼽히던 '면양정가단'이 탄생했다. 가사문학의 대가인 면양정 송순(1493~1583)이 중종 28년(1533)에 세운 정자로, 삼면이 절벽으로 이뤄져 있다.

그의 대표적인 가사 '삼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 내니.....'에 나오는 초려(草廡)가 바로 면양정.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와정(瓦亭·기와를 올린 정자)이다. 17세기부터 수차례 보수를 거쳐 지난 1979년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고 한다.

◇송강정=송강 정철이 선조 17년(1584)에 지었던 터에 영조 46년(1770)에 후손이 다시 세운 정자다. 그는 여기서 식영정을 오가며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같은 수많은 가사와 단가를 지었다. 정자 정면에 '송강정(松江亭)'이라고 새긴 편액이 있고, 측면 처마 밑에는 '죽록정(竹綠亭)'이라는 편액이 있다.

◇명옥헌 원림=명옥헌원림(鳴玉軒苑林)은 8월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명옥헌이란 정자 아래 방자형 연못이 있고 그 연못 한가운데 둥근 섬이 있다.

명옥헌은 사철 언제 찾아도 좋지만 여름부터 초가을까지가 절정이다. 연못 둘레에 빙 돌아가며 심어진 수십 그루의 배롱나무가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기 때문이다. 배롱나무는 백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우는 나무라 해서 붉은 이름, 배롱나무가 꽃을 피우는 계절에는 명옥헌은 은통 붉은 꽃구름으로 뒤덮인다.

◇한국 가사문학관=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다.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鄭澈·1536~1593)을 비롯, 면양정 송순(宋純·1493~1582), 석천 임억령(林億齡·1496~1568), 소쇄처사 양산보, 하서 김인후, 서하당 김성원(金成遠·1525~1597) 등 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문인들의 작품들이 한데 모여 있다.

본관과 부속 건물인 자미정·세심정·산방·토산점점·전통차집 등이 있다. 전시품으로는 가사문학 자료를 비롯하여 송순의 '면양정'과 정철의 송강집 및 친필 유묵 등을 전시하고 있다.

가사문학관·원림을 둘러보려면 면양정→송강정→명옥헌 원림→독수정 원림→소쇄원→한국가사문학관→식영정→환벽당→취가정 코스를 택하는 것이 좋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담양은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등 누정(樓亭)과 원림(園林)이 즐비한 곳으로 옛 선비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관광지다. 사진은 소쇄원 정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美 순회 관광마케팅

LA·시카고·뉴욕·워싱턴 홍보 활동

광주시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미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관광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시는 관광 마케팅의 불모지나 다름 없는 미국에서 광주·전남을 알리고 신규 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21일부터 미국 LA, 시카고, 뉴욕, 워싱턴, 댈러스 지역 등을 방문해 여행업계 및 언론사, 항공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주 관광상품 설명회와 함께 관광객 유치활동을 벌인다.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관광 설명회에는 아시아·한국 투어 상품 판매사, 언론사, 한인회 관계자 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시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은 미주 관광 상품 전문 여행사인 유에스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추진된다.

시는 미주 지역 상품 판매 여행사들에게 광주 관광상품을 집중 소개하는 한편, 광주 방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미주 시장을 공략한다.

특히 시는 한국의 새로운 관광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 권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와 인근 전남 지역의 자연 경관과 역사 유적지, 음식문화 등을 집중 소개한다. 또 오는 10월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와 김치축제 등 국제적인 이벤트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주 지역 내 광주 관광상품 판매 여행사에 대한 캠페어도 계획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도 홈페이지 '관광 위주' 재편

주요 관광지 소개...현안 사업 홍보도

전남도가 최근 홈페이지(www.jeonnam.go.kr)를 관광 모드로 바꿨다.

전남도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에게 전남만의 아름다운 자연과 움직이는 도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가보고 싶은 전남'을 느끼도록 산뜻하게 단장했다.

메인 화면의 디자인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 전국체육대회, 투자유치 추진 등 현안과 섬·바다 등 전남도가 갖고 있는 비교 우위 자원들의 장점을 시가별, 이슈별로 반영했다.

특히 2010전남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등 대규모 역점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한옥, 천일염 등 전남도의 역점시책과 보건복지 및 민원 관련 정보 등 도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보강했다.

전남도는 홈페이지에 최신 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국별 자료관리 실태 평가제를 도입해 도민에게 살아있는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배양자 전남도 홍보관은 "앞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 콘텐츠 확대, 사용자 중심의 메뉴 체계 재구성 등으로 사이버상에서 전남의 비전과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Advertisement for 'Jeonnam Unse' (전남운세) featuring various fortune tellers and their services. Includes contact number 080-700-3657.

Large advertisement for 'News Seoul Night' (뉴스서울나이트) featuring Shin Eun-do and Park Sang-cheol. Promotes a '4월 24일 OPEN' event with ticket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